

“우리 회사 어때요?”… MZ세대에 손짓하는 반도체업계

기업소식·직원 인터뷰 등 홍보활동 노출 늘려 취업 준비생에 인지도 ↑ 임금인상·복지로 인력 지키기 온힘

“새로운 직원을 유치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한 반도체 관련 업체는 말했다. 반도체 업계가 인력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주요 양산업체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업계는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뉴스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스룸에 단순한 기업 소식 뿐 아니라, 실제 임직원들의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게재하며 MZ세대와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자사 기술은 물론 브이로그 형식으로 근무 환경과 일상까지 담아 회당 수만에서 수십만뷰를 달성하고 있다. LX세미콘도 유튜브와 함께 뉴스룸에 웹툰 등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유튜브 채널은 'S로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직원들의 근무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은 S로그에 참여한 경계현 사장(왼쪽). /유튜브 채널 캡처

대기업 뿐 아니다. ASML과 램리스치코리아,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등 외국계 소부장 업체들도 블로그와 SNS, 유튜브를 통해 자사 사업과 직무 소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국내 소부장 업체도 홍보 활동을 시작했거나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주로 B2B 형태인 반도체 업계가 굳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힘을 쏟는 이유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최근 들어 반도체 시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 확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를 전공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

에 신입 직원을 뽑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된 것.

반도체 인력난이 최근 일만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반도체 관련 전공자는 600~700명 남짓.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15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인력 양성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규제 때문에 증가폭이 제한적이었던 전언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주요 기업들이 인재 육성 확대에 나서긴 했지만,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가 본격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 5년여간은 공백



LX세미콘 뉴스룸에 연재 중인 웹툰. /LX세미콘

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장기적으로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이미 대기업은 관련 전공자와 대학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입사를 조건으로 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업체들이 홍보 활동을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접 인재 유치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노출을 늘려 취업 준비생에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기업 홍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원자가 늘면서 적지 않은 흥

보 효과를 누렸다는 후문이다.

인재 이탈도 문제다. 영업 비중이 높아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도 연구·개발 거점을 만들면서 적지 않은 인재를 끌어들여가고 있다. 대만과 중국 등 국가에서도 여전히 ‘인력 빼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가 양적인 인재 확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대신, 논문 작성 숫자나 주요 저자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 일부 하향 평준화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임직원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반도체 업계는 저마다 ‘역대급’ 임금인상과 복지를 단행하며 인력 지키기 작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규모가 큰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업계 목소리를 묵살한 탓에 인력난이 현실화됐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 'IEEE ICC'서 6G 혁신기술 알린다

미래 기술 비전 공유·협력 논의의 장 '옵니팻'으로 新 모빌리티 시대 전망

LG전자도 6G를 비롯한 미래 신기술을 자랑한다.

LG전자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EEE(전기전자공학회) ECC(국제통신회의) 2022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ICC는 IEEE 산하 통신 소사이터가 주관하는 국제 학술행사다. 전세계 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 2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미래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LG전자는 커넥티드카와 6G,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사업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대표 전시품은 LG 옵니팻이다. 옵니팻은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로, 사무실과 운동,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전망할 수 있다.

아울러 LG전자는 ▲6G 테라헤르츠 (THz)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력



LG전자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EEE(전기전자공학회) ECC(국제통신회의) 2022에 참가한다. 사진은 LG 옵니팻. /LG전자

증폭기 소자 ▲주파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FDR(Full Duplex Radio, 전이동 통신) 송수신 기술 ▲차량과 보행자 사이는 물론 차량과 이륜차 간, 차량과 차량 간 충돌위험을 알려주는 스마트 솔루션 'Soft V2X' ▲고객이 스마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 사물, 사용자 상황을 인지해 스스로 진화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 칩 등을 소개하기 위한 공간도 마련

했다. 17일에는 IEEE 펠로우인 LG전자 김병훈 CTO(부사장)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연결성과 소프트웨어 기반 설계의 기술 발전’을 주제로 키노트를 발표한다.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게임사, P2E게임 앞세운 반등 계획 ‘빨간불’

>> 1면 “테라·루나사태”서 계속

투자 유치 난항 가능성에 예의 주시

컴투스그룹이 발행하는 가상통화 C2X는 루나를 발행하는 테라폼즈의 블록체인 ‘테라’ 메인넷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영향은 더욱 컸다. 메인넷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거래 등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에 컴투스는 테라 메인넷을 떠나 다른 메인넷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컴투스그룹측은 지난 13일 공지를 통해 “C2X를 다른 메인넷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넷마블의 마브렉스(MBX)도 지난 6일 기준 6만 4222.85에서 9일 2만 4387.05원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1만 1558.90으로 급락했다. 넷마블은 블록체인 자회사 마브렉스를 통해 MBX토큰을 상장시키고 암호화폐 지갑을 구축하는 등 해당 분야 확장에 속력을 냈다. 뿐만 아니라 P2E 사업에도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였다.

또 위메이드도 지난 7일 기준 3031.61원이었던 가격이 2519.00원까지 하락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에 위믹스달러라는 스테이블코인을 구축하고 자체 메인넷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하지만 메인넷이 테라와 비슷한 구조라는 것에 위메이드도 해당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올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인건비와 마케팅 증가로 실적 부진 성적표를 받으면서 P2E게임을 필두로 반등을 꾀하려던 계획에 비상불이 켜졌다.



/테라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 게임 내 가상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면 게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P2E 게임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 유치도 어려워 질 수 있어 게임사들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예의를 주시하고 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테라 등 가상자산 위기 상황으로 인해 관련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 역시 함께 휘청이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을 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블록체인에 투자하던 게임사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을 수 없는데 외부 위기도 함께 찾아온 상황”이라고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루나사태 처럼 앞으로 더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날 것을 대비해 대안책을 만들어 놔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번 사태가 블록체인, P2E 게임의 신뢰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두고 볼수만은 없다”며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확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 막닥뜨린 게임사들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것. 정부의 앞서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이 상황을 전면 검토해야 하는 게임사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에어컨 생산 풀가동

‘체온풍’ 등 관심 높아져

삼성전자가 무더위를 대비해 에어컨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는 2월부터 광주사업장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2년형 무풍에어컨으

로 인기를 확인한 상태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에 이어 간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체온풍’까지 선보이면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선호도 높다. 삼성전자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은 물론 냉매를 바꾸고 솔라셀 리모컨을 탑

재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아울러 이지케어 7단계와 청정 필터 시스템 등 내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관리도 쉽게하는 기능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외에도 천장에 매립해 공간 활용도가 높은 무풍 시스템에어컨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에어컨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